전북글로컬특성화고 예비학교 선정

도교육청, '신산업 · 신기술 융합형' 전북하이텍고
'지역전략신업 맞춤형' 이리공고 등 총 10개 학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글로컬특성화고' 예비학교 10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특성화고를 신산업·신기술 융합형, 지역 전략산업 연계형, 학교 자체 발전형,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교육형으로 재구조화하고, 학교별로 신산업·신기술 테마가 담길 수 있도록 학교명과 학과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도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4개교 중 18개교가 신청을 했으며, 이후 컨설팅을 거쳐 13개교가 실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중 심사를 거쳐 10개교를 예비학교로 선정했다.

먼저,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테마 1유형(신산업·신기술 융합형)에 전북하이텍고((가칭) 전북스마트팩토리고등학교) 1개교를, 테마 2유형(지역전략산업 맞춤형)에는 이리공업고((가칭)국제에너지고) 1개교를 각각 선정했다.

이어 학교자체 발전형인 테마 3유형에는 8개교가 선정됐다.

선정된 8개 학교는 △완산여자고(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진안공업고(군기술부사관 분야) △부안제일고(제과제빵명인 분야) △오수고(반려동물산업분야) △원광보건고(보건분야) △전주공업고(국가기간산업분야) △학산고(국제교류협력 분야) △전북유니텍고(신기술융합 분야) 등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7월 말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전북글로컬특성화고' 최종 선정 학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전북글로컬특성화고'를 통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발맞춰 미래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내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선정

우석대 양갑식 교수, 경피전달 스마트 한약시스템 이용 아토피피부염 · 건선 치료 전략 연구 수행
김명호 교수,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염증성 장질환 탁리소독 한약 기전 규명 등 연구

양갑식 교수

김명호 교수

우석대학교 양갑식(한의예과) 교수와 김명호(한의학과) 교수가 '2023년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에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갑식 교수를 주축으로 한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신개념 한약 전달 원천기술 및 바이오 융합기술 기반 다중표적 한약제재 개발' 분야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2027년까지 15억2,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경피전달 스마트 한약 시스템을 이용한 아토피피부염 및 건선 치료 전략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김명호 교수는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5억8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탁리소독 한약의 기전 규명 및 최적화를 위한 멀티오믹스·네트워크 약리·문헌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2027년까지 진행한다.

한편 해당 사업은 한의기술을 기반으로 첨단과학기술·기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 우리 고유의 혁신적인 기초·원천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갑식 교수는 "이번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한의기술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난치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 해결 메커니즘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 교수는 "사명감을 갖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 산업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드론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진행

21일까지 조선이공대 제주관광대 등과 공동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우병훈)는 18~21일까지 조선이공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와 공동으로 드론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교내 및 전주 덕진공원·수목원 등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전주비전대학교 20명, 조선이공대학교 14명, 제주관광대학교 13명 등 총 50명이 참석했다.

전주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 장소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제작한 완성본을 통해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특히 각 대학의 교수들과 보조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제작에 도움을 주고, 드론 조종법 및 영상 편집 기술까지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주비전대 이근상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드론 관련 산업 분야에 진출해 물류, 방송, 공간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혁신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9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 앞장"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이 · 취임식
신윤호 취임회장 "변화하는 학운협 조성 노력"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신윤호)는 19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경숙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임하는 김명곤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신윤호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임기가 만료된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5명과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사무국 직원 9명에게 교육감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김명곤 이임회장(사진 왼쪽)과 신윤호 취임회장.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도내 14개 시군 협의회장들이 모여 지역 간 정보 공유 및 협조체제 구축,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와 단위학교의 교육 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14개 시군 중 군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고창, 부안 등 9개 지역에서 새로운 회장이 취임했다.

신윤호 회장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역동적인 학운협, 대안을 제시하는 학운협, 변화하는 학운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전북교육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이제는 무료로 들어요'

지난 17일부터 무료 전환
사교육 부담 경감 등 일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EBS 핵심 콘텐츠인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지난 17일부터 무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교육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는 학교마다 다른 교과서에 맞춤형 강의를 제공해 내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특히 시중의 유명한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과목별 1,300강좌 등 총 3만 편에 이르는 방대한 콘텐츠다.

한편,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수강하려면 연간 71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EBS 중학 사이트에 가입한 후 프리패스 무료 신청을 하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무료 전환을 통해 사교육 수요가 공교육으로 일부 흡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교육청은 향후 EBS와 협력해 양질의 지역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내달 24~25일 재학생 대상 취업캠프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오는 8월 24~25일 1박 2일 동안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구직스킬UP! 취업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희망기업 및 직무분석방법 △자기소개서 작성 및 특강 △팀워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면접 전략 특강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및 피드백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취업캠프에 참여했던 재학생은 "취업캠프를 통해 취업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취업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이번 취업캠프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바른 자세·바른 건강생활로 신체불균형 예방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22일 전북대 간호대학서 초등 5~6학년 학생 40명 대상 식이 · 운동 프로그램 운영
앞서 '척추측만' 캠프 진행 바른 자세 습관화 돕기 일환

전북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사업수행기관 전북대간호대학)는 '바른 자세 바른 건강생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만·척추측만 등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건강생활을 돕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초등학교 5~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프는 비만예방을 위한 식이·운동·동기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1회성 캠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주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바른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북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사업수행기관 전북대간호대학)는 '바른 자세 바른 건강생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진행된 '척추측만'을 주제로 한 캠프.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척추측만'을 주제로 한 캠프가 진행됐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척추측만 캠프는 이번이 처음이다. 척추측만증 환자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기부터 바른 자세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프에 참여한 도내 27명의 중학생은 의료 및 체육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척추측만 등 신체불균형 상태를 진단받고, 척추측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운동요법 및 건강생활 실천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 불균형 예방 관리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현대미술로 읽는 인문정신'

전북대 평생교육원, 12월까지 인문학 특강
이철량 명예교수 초청 21일 첫 특강 열어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양병호)은 오는 12월까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인문학 특강은 오는 21일 시작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3시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실시된다.

21일 첫 번째 특강은 이철량 전북대 명예교수(미술학과·사진)가 문을 연다. 이 명예교수는 '현대미술로 읽는 인문정신'을 주제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내용으로 지역민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8월에는 서철원 소설가의 '역사소설의 진실과 환상'을 주제로 역사와 소설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밖에도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문화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모든 특강은 무료로 진행된다.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cec.jbnu.ac.kr/)나 전화(063-288-0022)로 하면 된다.

양병호 원장은 "이번 인문학 특강이 지역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 이야기를 통해 지역주민과 밀도있게 소통하고, 지역의 인문정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국립군산대 경영학과 재학생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입상

국립군산대학교 경영학과 소확행팀(4학년 김기원, 3학년 김민우, 김하늘, 노태욱, 류수민 학생)이 최근 열린 2023년 제2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해 장려상과 한남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했다.

소확행팀은 장애인 차량 전용 번호판·유도손전등·횡단보도용 자동 보행기·모두를 위한 비대면 회진 시스템 총 4개의 작품을 제출하여 장려상 3개와 한남대학교 총장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